

## 국 외 소 식



### 호주, 동물원에 사람도 전시된다

호주의 한 동물원이 사람도 동물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으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우리 안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호주 신문들이 11월 26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애들레이드 동물원이 내년 1월 시작하는 ‘인간 동물원’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에서 남녀 인간들도 우리 안에 갇힌 채 전시돼 관람객들이 구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세계 최초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사람을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한꺼번에 6명이 오랑우탄이 사용하던 우리 안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라고 신문들은 설명했다.

신문들은 특히 6명씩 4개조가 번갈아 가며 칠판지와 고릴라 우리와 붙어 있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면 이들은 옆에 있는 유인원들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전시회가 1개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6명으로 구성된 1개조가 1주일 씩 우리 안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앞으로 선발해 수의사가 건강을 체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인간 동물들’에게는 다른 원숭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간단한 퍼즐이나 놀이기구가 제공되고 먹는 것도 다른 원숭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먹이 찾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뭔가에 숨겨서 던져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간 동물원 전시 구상은 사람들에게 동물의 왕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간의 위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내년 모나토 동물원에 지으려는 호주에서 가장 큰 칠판지 우리의 건설 자금을 모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심리학자인 칼라 리치필드 박사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나체로 활동하는 인간 동물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수영복 차림으로 생활하면서 날씨가 더울 경우 간단한 샤워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행사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의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위상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과학적 동기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한성 통신원(koh@yna.co.kr)

2006년 11월 26일

### 중지린성 “야생호랑이에 들리면 정부에서 보상”

중국 지린(吉林)성이 야생호랑이를 비롯한 중점 보호대상 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이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중국의 현지언론들이 11월 6일 보도했다.

성시만보(城市晚報)와 길림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린성 정부는 최근 ‘중점보호육지야생동물 인

신재산손해보상방법이라는 규정을 제정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습격을 받아 상해를 입은 경우 성 정부에서 치료비의 80%를 지급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는 연평균 중업원 노임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새 보상규정은 지난 9월21일 지린성 훈춘(琿春)시 시자산(西架山)촌에 거주하는 조선족 농민 김진성(金鎭成, 68)씨가 마을 뒷산에서 야생호랑이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부가 ‘동북호(東北虎)’로 불리는 시베리아호랑이(한국명 백두산호랑이)의 보호를 위해 동북지방의 야생호랑이 서식지를 자연보호구로 지정한 뒤로 야생호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린성 정부는 신체 상해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와 같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성 정부와 해당 시·현 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해 피해액을 보상키로 했다. <중국 선양> 조계창 특파원(phillife@yna.co.kr)

2006년 11월 6일

### **美 피츠버그, 주인과 애완동물 합장묘원 등장**

애완 동물과 그들의 주인이 영원히 함께 쉴 수 있는 공동묘지가 피츠버그에 등장한다.

12월 2일(이하 현지시간)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지에 따르면 머서카운티 허미티지에서 71에이커(약 87,000평) 규모의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는 ‘존 플린 장례사’ 측은 전체 부지 가운데 10에이커(약 12,000평)를 ‘힐크레스트 애완동물 묘지’로 해 주인과 동물을 합장하는 곳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79년 11월 4일부터 1981년 1월 20일까지 미국인들이 444일간 억류됐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444개의 성조기가 꽂혀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회사측은 사람들만 묻는 일반 묘지와 이 묘지 사이에 나무를 심어 구분한다.

지금까지 애완동물의 묘지는 미국내 약 800곳에서 운영되어 왔지만 합장이 가능한 곳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에 있는 국제장례협회의 로버트 펠스 상담역은 “사람과 애완동물을 합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입관 계약을 할 때에는 시신만 매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면서 “이번 사례는 애완동물만을 위한 묘지에서 벗어나는 선도적인 것으로,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장례회사 대표인 존 플린씨는 “많은 이들이 애완동물과 함께 묻힐 수 없느냐고 물어온 반면 또다른 이들은 애완동물이 묻히는 묘지에 함께 묻힐 수 없다고 주장했기에 같은 장소이되 구역을 분리시킨 묘지가 등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애완동물과 합장하기를 원하는 주인들은 우선 죽은 동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자신이 숨졌을 때 합장하면 되는데, 동물을 화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기에 따라 150~495 달러가 든다.

또 화장 유골을 담은 관은 스티로폼부터 나무까지 100~1천 달러로 다양하고 매장하는 데는 비석을 포함해 평균 700 달러이지만 더 호화롭게 할 수도 있는데, 회사측은 각 가정을 방문해 시체를 처리하는 것

부터 장례까지 모든 서비스를 연중 무휴, 하루 24시간 제공한다. <미국 피츠버그>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2006년 12월 3일

### 美 조류학자, 새 보호 명목 고양이 사살 논란

미국에서 각종 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명소 중 하나로 잘 알려진 텍사스 갤버스턴에서 한 조류전문가가 새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들고양이를 사살한 행위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월 25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갤버스턴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9시께 '샌루이스 패스' 다리에서 총을 쏘 암고양이를 사살한 짐 스티븐슨(53)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고양이들이 새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보고서도 놔둬야 하느냐고 강변하는 스티븐슨씨는 전세계를 여행하며 새를 연구하면서 4권의 책을 펴냈으며 이 지역에 갤버스턴조류학회를 창립하는 등 새를 끔찍하게 아끼는 인물이다.

에드워드 베나비데스 갤버스턴 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야생 상태로 살아가던 고양이가 새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는 행위는 야만적이다”며 “그의 고양이 사살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한 몸을 던지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온 그는 당시 멸종위험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물떼새를 쫓고 있던 고양이를 발견했고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한다고 판단해 22구경 소총을 쏘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물론 과거에도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음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이는 자연의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996년 텍사스 수렵감시관에게 적발될 당시 그는 불법으로 새를 포획하고 거북이 잔해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그가 새에 유해한 동물들을 더 많이 죽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고양이 보호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사살된 고양이를 포함해 여러 마리를 묻어야 했던 존 뉴랜드(68)씨는 “세상에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양이를 증오하는 사람도 있음을 알았다”며 “너무 잔인하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 동물보호소의 캐럴라인 도셋 소장은 그의 행위에 깜짝 놀랐으면서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동물은 없어져도 좋다는 그의 사고가 놀라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이들간 구금된 뒤 풀려난 스티븐슨은 이 사건 후 “고양이를 쓰면 당신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지만 수많은 격려편지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스티븐슨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2년이 선고될 수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장익상 특파원(isjang@yna.co.kr)

2006년 11월 26일

### EU, 中 개. 고양이 모피제품 금수

유럽연합(EU)은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개와 고양이 모피제품의 수입과 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11월 20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와 고양이 모피로 만든 의류, 액세서리, 어린이 장난감 등이 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면서 이들 제품은 다른 동물의 모피 제품으로 둔갑하거나 아예 모피의 종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개와 고양이 모피 제품이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특히 모피용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키프리아누 EU 보건 및 소비자 담당 집행위원은 “개와 고양이는 EU에서 친구 같은 동물들로 그들의 모피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의 어린애들이 개와 고양이 모피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EU 시민들과 유럽의회 등 EU 정치세력의 광범위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개·고양이 모피제품의 금수 및 판금 조치는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회원국 차원에서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가 유럽의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실행될 경우 DNA 검사 등 새로운 검색 방식이 도입되는 등 검색 규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브뤼셀> 이상인 특파원(sangin@yna.co.kr)

2006년 11월 21일

### 먹는 알레르기비염 치료백신 나온다

알레르기비염 증세를 완화하는 알약형 치료백신이 영국에서 내년 초 출시된다고 BBC인터넷판이 12월 11일 보도했다. 알크-아벨로(ALK-Abello) 사가 개발한 그라작스(Grazax)라는 이 알레르기비염 치료백신은 증세를 30% 감소시키며 전통적인 치료제인 항히스타민제나 코 스프레이보다 효과가 크다고 BBC는 전했다. 벼과(科)의 목초 큰조아재비(timothy grass)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일종의 면역치료제인 이 백신은 꽃가루 날리는 계절이 오기 전 하루 한 알씩 8주간 혀 아래에 투입하면 알레르기 계절 내내 효과를 볼 수 있다. 스테로이드성 코 스프레이는 효과가 1주일밖에는 지속되지 않는다.

영국 의학연구소(MRC)와 천식센터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이 백신의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6년 12월 12일

### 정신 질환, 냄새 맡아보게 하면 알 수 있다

단순히 사람에게 냄새를 맡아 보게만 해도 정신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발병 징후도 미리 알아낼 수 있다고 호주 연구팀이 밝혔다.

12월 6일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멜버른 신경정신과 병원 연구팀은 커피, 장미, 표백제, 위스키 등의 냄새가 들어간 40여 가지의 카드를 이용해 정신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면서 냄새를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알츠하이머, 파킨슨, 망상 충동 장애 등 많은 정신신경 질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크리스토스 판텔리스 교수는 “연구팀이 냄새 맡는 방법을 통해 실험한 결과 정신질환의 조기 진단은 물론이고 병세의 진척 상황을 알아내고 누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도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했다.

신경의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코에서 수집된 후각정보가 문제 해결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뇌의 전두엽에 전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신신경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의 후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 것은 이들 호주 연구팀이 처음이다.

판텔리스 교수는 “우리가 찾아낸 것은 정신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 냄새를 맡는 뇌 부위가 손상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찾아낸 그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젊은이에게 냄새를 맡아 보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냄새 카드를 이용한 검사가 혈액 검사처럼 아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면서 특히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전에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냄새 카드를 이용한 검사는 60 달러 정도의 비용만 들이면 지금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 얻은 연구 결과가 정신 분열증,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등 정신신경 질환의 유전자 구조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훈성 통신원(koh@yna.co.kr)

2006년 12월 6일

### 아스피린, 전립선 비대 막는다

아스피린이 전립선 비대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제니 소버 박사는 의학전문지 ‘역학 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아스피린 등 비(非)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를 매일 복용하는 사람이 불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에 비해 전립선 비대 위험이 거의 5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인터넷판이 12월 9일 보도했다.

소버 박사는 634명을 대상으로 12년에 걸쳐 아스피린 복용 여부를 조사하고 2년에 한 번씩 경직장초음파촬영과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통해 전립선 비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소버 박사는 NSAID는 전립선 비대를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버 박사는 NSAID가 이처럼 전립선 비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전립선의 성장을 직접 억제하거나 전립선의 세포사멸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니면 NSAID가 전반적으로 비뇨생식관의 염증을 감소시키는지도 모른다고 소버 박사는 말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전립선 비대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아스피린의 적정투여량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소버 박사는 덧붙였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6년 12월 12일

### 3년후 생분해되는 심장 스텐트 개발

시술 3년 후면 저절로 체내에서 생분해되는 새로운 심장 스텐트가 개발되었다.

스텐트란 심장을 펌프질하는 심근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삽입해 혈류를 회복시키는 원주모양의 금속망이다.

기존의 스텐트는 한 번 심으면 영구히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스텐트 주위에 혈전이 형성되면서 혈관이 다시 막힐 위험이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립병원의 존 오미스턴 박사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스텐트 대신 폴리머(중합체)로 만들어 시술 3년 후에는 자연분해돼 없어지는 스텐트를 개발했다고 영국의 BBC인터넷판이 12월 11일 보도했다.

BVS(Bioabsorbable Vascular Solutions) 스텐트라고 불리는 이 삽입장치는 재료인 폴리머가 2~3년에 걸쳐 유산으로 바뀌고 유산은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돼 체내로 흡수된다고 오미스턴 박사는 밝혔다.

오미스턴 박사는 “팔이 부러지면 캐스트를 하지만 뼈가 붙은 다음에는 캐스트를 제거하듯이 손상된 관상동맥이 회복된 후에는 삽입한 스텐트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미스턴 박사는 이 폴리머 스텐트는 기존의 스텐트처럼 재발협착을 막아주는 약물인 에버롤리무스를 방출한다고 밝히고 이 스텐트는 우선 가변성이 있어 시술이 쉽고 금속이 아니라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에 선명하게 나타나며 나중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혈전형성 가능성이 낮은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폴리머 스텐트는 이미 유럽과 뉴질랜드에서 30명의 환자에게 시술돼 초기단계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오미스턴 박사는 30일이 지난 현재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시술 6개월이 되는 내년 3월에 최종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결과가 좋으면 대조군이 설정된 보다 규모가 큰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분해되는 폴리머는 체내에서 약물을 운반하는 캡슐, 수술봉합사 등 다른 의료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한성간 기자(skhan@yna.co.kr)

2006년 12월 12일

## 국내 소식



### 에버랜드 '아기 사자 5남매' 공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는 지난 10월말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사자 5남매를 12월 5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아기 사자는 10월 26일 태어난 수컷 1마리와 암컷 2마리, 10월 27일과 29일 각각 태어난 암컷 2마리 등 5마리며 60~65cm의 신장에 2.5~3kg의 체중으로 사육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아기 사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특제 분유를 하루 5회 이상 먹이고 '야생동물 아기 사랑방'의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매일 오후 수의사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관람객들에게 아기사자의 잠자는 모습과 우유 먹는 모습, 건강검진 모습 등을 '애니멀 원더월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신영근 기자 (drops@yna.co.kr)



사자

2006년 12월 5일

### “한국인 아토피 유전적 경향 따로 있다”

서울대의대 조상현 교수팀, '흉곽' 지에 논문

한국인의 아토피 증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유전자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특정 유전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조상현 교수팀은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소아, 청소년 2천55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 아토피 환자에게만 특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월 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 '흉곽(Thorax)' 최신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2천55명의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먼지진드기 2종류와 강아지 털, 고양이 털, 곰팡이 2종류, 목초 꽃가루, 수목 꽃가루, 잡초 꽃가루 등 총 11종의 항원으로 피부반응검사를 거쳐 767명을 아토피 증상으로 진단했다. 제주도 어린이의 37.3%가 아토피 환자인 셈이다. 또한 연구팀은 전체 조사 대상자들에게서 채취한 혈액을 이용해 지금까지 알려진 아토피 관련 후보 유전자 7종의 '단일염기다형(SNP,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 변이)'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아토피가 한두 가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처럼 여러 유전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다유전적(multigenetic)'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아토피 후보 유전자를 찾아 본 연구는 없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SNP 분석결과 기존의 보고와 달리 우리나라 소아와 청소년에게서는 검사한 7종의 유전자 모두 개별적으로는 아토피 관련 유의성이 없었다. 하지만 다요인 차원의 연구를 한 결과 '종양괴사인자 알파(TNF- $\alpha$ )' 유전자와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2(KDR)' 유전자의 경우 상호 작용을 통해 아토피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TNF- $\alpha$ 와 KDR 유전자의 특정 단일염기변이에서 돌연변이 대립형질을 동시에 가진 소아나 청소년이 아토피를 나타내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더 높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앞으로의 아토피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이한 유전 경향을 찾는 인종적 연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면서 “아토피와 관련한 고유의 유전적 경향을 알게 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약물 반응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원 기자(bio@yna.co.kr)

2006년 12월 4일

### 서울아산병원 "IRB 국제 공인인증 획득"

서울아산병원은 자체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가 최근 태국 아우타야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FERCAP)’ 으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공식 자격인증서를 받았다고 11월 29일 밝혔다. FERCAP는 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상연구의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의학전문가들과 생명윤리학자들이 주체가 돼 설립된 단체다. FERCAP측은 지난 4월 25일부터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 6명의 전문 심사요원을 파견, 7개월간에 걸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규정, 연구과제 심사 내용 및 시설과 장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병원측은 “이번 인증으로 임상연구 활동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제임상연구가 활성화 될 것”면서 “특히 다국적 제약기업의 아시아권 임상 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유치와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길원 기자(bio@yna.co.kr)

2006년 11월 29일

### “침으로 고혈압 치료 효과 거뒀”

한의학연구원, 차서메디칼협력체계, 격팔상생침법 사용 우리나라 고유의 침법(針法)이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사들로 구성된 학회인 ‘차서 메디칼 협력체계’ 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격팔상생침법을 사용한 결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봤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이 같은 임상결과를 담은 논문은 24~2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침구학회연합회의 6대 논문으로 선정됐으며, 다음달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대체의학학회에도 제출돼 있다.

격팔상생침법은 올려신서 등 동양의 고전에 언급돼 오던 올려(律呂)를 한의학적 원리와 결합한 새로운 침법으로 알려져 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5월 고혈압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격팔상생침을 10회 시술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평균 21.18, 이완기 혈압은 14.9 떨어졌다.

논문은 “대상자 수가 30명으로 적고 관찰 기간 후 3주 정도로 짧은 편이어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더 오랜기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과가 다른 우수 침법을 연구하는 데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자평했다. 황정욱 기자(hjw@yna.co.kr)

2006년 11월 23일

전 기사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